

3. 삶을 계획하기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의 가정예배 규칙을 정해봅시다.
< 우리가족의 가정예배 규칙 >

<가정예배 순서지>
날짜: 1월 16일

★요일과 시간 : _____

★예배담당자 : _____

★가정예배 진행 순서 : _____


★ _____

4. 함께 드리는 기도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가정의 모든 구성원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감정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에 기대어 사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 하가다

- ① 반드시 소리내어 합니다. ② 매일 반복합니다.
 - ③ 집중해서 합니다. ④ 믿음으로 합니다.
 - ⑤ 단순하게 합니다.
- (여러 구절보다는 한 구절을, 암송보다는 3천 번 읊조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금주의 하가다 말씀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창 4:4]

인생의 공회전을 멈추고 싶은 이에게

◆ 모임 순서

- 마음열기 : 지난주를 돌아보며 나누기
- 찬 양 : 찬송 38장
- 성경읽기 : 창 4:1-8 (구약 5면)
- 말씀나눔 : 인생의 공회전을 멈추고 싶은 이에게
- 삶에적용 : 그러면 나는?
- 기 도 : 합심기도
- 주기도문



0. 본문 배경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한 죄로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후,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에덴동산에 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 주셨지만, 이제는 먹고살기 위해 땅을 갈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의 형 벌로 평생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음식을 얻을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창 3:17). 가인과 아벨도 각각 농부와 목자로 땅의 소산을 얻어서 자신의 소산, 즉 가인은 땅의 소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3-5절). 그 이유를 본문에서 세세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말씀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우 선 구약의 제사 중에 곡식의 제사인 소제(레 2장)가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곡식과 양이라는 제물의 종류에 차등을 두신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배자의 중심을 보십니다. 가인은 마음이 악했나(요일 3:12),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히 11:4).

예배 후에 가인은 낙심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죄에 지배받지 말고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7절). 하지만 가인은 마음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채 결국 아벨을 죽이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8절).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예물보다 예배자의 중심,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가인처럼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아벨처럼 처음 것을 구별하여 드리며,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둔 믿음으로 예배에 나아가야 합니다.

1. 말씀 관찰

1)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하셨나요? (4-5절)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자신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학자들 간의 차이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4b)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5a)은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예배자인가가 중요합니다. 사람으로서 최고의 영광과 행복은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만사가 형통한 것 같아도 예배가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진 것입니다. 인생의 공회전을 멈추고 싶다면 가정 먼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2) 분노한 가인은 결국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8절)

동생 아벨을 살해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은 한 가정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결정적인 원인은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5절).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인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는데, 아벨을 향해 분노합니다.

감정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감정을 다스리지 않으면 감정의 노예가 되어 감정이 이끄는 대로 죄를 짓게 됩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 된 감정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십자가를 가까이하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2. 말씀 적용

1) 예배자로서 나의 모습을 점검하고 더 노력해야 할 부분에 대해 가족과 함께 나누어봅시다.

2) 십자가에 못박아야 할 감정이 있다면 무엇인지 가족과 함께 나누어봅시다.